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공생재활원에 향기 피워준 윤희미

공생재활원. 인간의 향기가 물씬 피어나는 곳이다. 고향도 시절이나 연산동 시절이나 한결 같다. 따뜻한 엄마의 품 같다. 어쩌다가 방문이라도 하면 마냥 웃는 모습으로 맞아준다.

떠날 때도 마찬가지다. 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따라 나선다. 그리고 차가 떠날 때까지 바라봐 준다. 마치 시집간 딸 친정에 다녀왔다 떠나갈 때처럼. 이러니 가고 싶지 않았는가.

때문에 이곳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표정이 밝다. 갖가지 사연을 가슴에 안고서 스며든 그들. 들어올 때는 긴장감도 느끼면서 왔을 건만 생활하면서 함박웃음이 피어난다. 어리광도 부린다. 부정도 부린다. 자기주장도 강해진다. 천사들의 집 분위기가 그러다. 록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공생하는 곳이다.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온 윤희미 원장.

얼마 전에 그 직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조출한 만찬을 가졌다.

70대 초반의 모습에도 여전히 소녀의 티를 벗지 못했다. 단아한 몸에서 흘러내리는 품격은 참으로 곱다. 지난날의 삶들이 그렇게 피워낸 것 같다. 청소년 시절부터 기아일시보호소 등을 운영하는 부모의 사회복지시설에 온 몸과 마음을 던졌다. 100여명이 넘는 영아들에게 우유를 먹이는 것은 그녀의 몫이었다.

한때는 300여명이 넘는 적도 있었다고 한다. 일하는 직원도 물자도 부족한 시절에 온갖 사람을 배 풀었던 것이다. 뒤처다끼미를 하다보면 굶기가 일쑤였다. 그러다가 허기를 느끼면 식은 밥 한 덩어리가 고작이었다. 한뼉잠도 일 수고, 그야말로 공부할라, 애기를

돌볼라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윤희미 전 원장의 몸과 마음에서 향기가 흐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급복서 향기도 울고 갈 정도로.

3월이 가고 있다. 복수초가 얼음장을 뚫고 나온 지 엿그제 같은데 벌써 4월이 코앞에 다가왔다. 세월은 험터도 없나보다. 인생이란 이렇게도 짧다. 그 짧은 시간들을 허송세월 할 수는 없다. 왔다 갔다하는 흔적이라도 남겨야 하기에. 조금이라도 아름다운 흔적을 말이다.

그런데 작금의 세상은 어둡기만 하다. 날이면 날마다 정치인들은 서로를 향해 사대질이다. 마치 철천지원수 같다. 모두가 힘을 합해도 좁디좁은 우리의 터전을 지키기도 어려운데. 한반도를 향해 주변의 열강들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조여 오고 있는데도 진정 이래야 될까.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가. 정치가 국민들을 위한 것 아닌가.

하지만 정치인들의 머릿속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 같다. 정치인들이여! 제발 생각을 바꿔라. 당신들의 나이가 몇인가. 이 세상에서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은가. 그 출디추운 날 따뜻한 봄날을 기다렸는데, 벌써 떠날 때가 되어가는 정치인들이여! 이제라도 선정을 해보면 어떤가.

'반민특위'라 해놓고 '반문특위'라 했다고 우겨대는 어느 정신나간 정치인 해괴망측한 자태에서 국민들에게 늘어가는 것은 한숨뿐이라는 것을 알아라. 제발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낮게 보지 말라. 이미 높을 대로 높아져버린 교육수준. 사이버공간에서의 각종 주인공은 정치인들 당신을 훨씬 능가해버린 청?장년 세대다.

이들을 어중잡은 요설로 현혹하려 하지마라. 수준 낮은 당신들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국민들에게는 어렵다. 오죽했으면 101살이나 된 임우철 애국지사가 내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아왔을까. 의원직에서 물러나면서, 참으로 경박스럽고 몰상식하기에, 자신을 잘 관조해보길 바란다.

불꽃 같은 공생재활원 윤희미 전 원장의 아름다운 삶을 반추해 보면서.

社說

생명 경시풍조 안 된다

자살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등 반자살을 모집하는 등 자살 관련 유해정보가 최근 5년 새 1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걱정이 다.

생명 경시풍조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 어떠한 경우라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생을 마감해선 안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살유해정보 심의현황'에 따르면 2014~2018년 동안 자살유해정보 심의요청건수가 총 94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4년 383건, 2015년 511건, 2016년 1786건, 2017년 1805건, 2018년 5011건으로 5년 새 13배나 증가한 수치다.

실제로 지난해 A씨는 SNS에 "펜션 가서 동반자살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방심위에 삭제조치된 바 있다.

또 같은 해 B씨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가스를 이용한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방심위가 삭제조치를 하기도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음란물 및 타인의 명예 훼손,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살방법이나 자살 조장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일부 국회의원은 자살유해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0대들이 각종 SNS 등을 통해 자살 방법 및 자살 조장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래들 사이에서 자살유해정보가 들불처럼 확산되는 것이 자살 시도 증가의 큰 요인 중에 하나로 보여진다.

정부는 자살 정보에 대한 즉각적 대응은 물론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산불 발생시 행동요령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생태계를 파괴시키며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키는 무서운 재난으로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많은 손길이 필요하다.

이러한 산불이 발생했을 때 행동요령 및 안전수칙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다.

첫째, 산불을 발견시 행동요령으로 먼저 119에 신고해야 한다.

둘째,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를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다.

셋째, 산불 규모가 커지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산불 발생지역

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넷째, 산불로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 등 연소물질을 신속히 제거한 후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한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린다.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될 경우 행동요령으로는 첫째, 불씨가 집,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문과 창문을 닫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휘발성 기연물 질 등은 제거해야 한다.

둘째,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이 발생한 산과 연결·연결된 민가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셋째,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산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학교, 공터,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준다.

넷째, 재난방송 등 산불상황을 알리는 상황에 집중하여 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불 가해자를 인지하였을 경우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관서,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산불이 계속 번져서 고립되었거

나 위험에 처했을 경우 대처요령은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번지게 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장소는 불이 지나간 태버린 장소, 낮은 장소,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하고 산불보다 높은 장소를 피하고 불길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낮은 지역을 찾아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을 끊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이 발생 했을 때 위에서 말한 기본적인 행동요령을 숙지한다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진민호 / 화순119안전센터 소방장



신문으로배우는 千字文

造次弗離

造次弗離

▷ 뜻: 남을 위(爲)한 동정심(同情心)을 잠시(暫時)라도 잊지 말고 항상(恒常) 가져야 함.

湖南新聞

대포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계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를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